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31회 법무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마0이입니다.

저는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전문직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수험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체력적·시간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고, 이후 전업으로 준비하여 1차 3개월, 2차 1년으로 총 1년 3개월의 수험 기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법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과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헌법과 행정법을 공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 과목을 공부하는 데에 흥미를 느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점이 시험 과목 전체가 법 과목으로 구성된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업으로 준비하는 동안에는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하려 노력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80시간 이상의 공부시간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2. 1차 시험

시험명	제30회 법무사시험
응시자명	마
주민등록번호	□*****
응시번호	101389

과목명	헌법,상법	민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	민사집행,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	부동산등기법,공탁법
점수	58	74	54	60

평균	61.5
합격선	60
합격여부	합격

1) 과목별 공부방법

• 헌법(강의)

헌법은 이전에 공부한 경험이 있었지만, 당시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과목이라 어렵게 느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보다는 상법을 주력 과목으로 삼아 점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헌법은 이재영 교수님의 집중이론 강의를 수강했고, 시간 부족으로 객관식 문제집은 풀지 못했습니다.

-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강의+객관식 문제집)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은 모두 처음 접하는 과목이어서 막막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하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집중이론 강의를 완강한 뒤, 객관식 문제집을 반복해 회독하며 기본 개념과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반복 또 반복'이었습니다.

- 민법(강의+객관식 문제집)

민법은 강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들을 때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돌아가 확실히 정리한 후 다음 강의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이혁준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두문자 자료는 최대한 암기하려 했고, 그때 들인 시간이 2차 시험까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분량이 방대해 여러 번 회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 번 볼 때 시간을 들여 정독했습니다. 다만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지나치게 지엽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X), 상업등기및비송사건절차법(X)

가족관계법과 상업등기법은 일부 강의를 들어보았지만, 시험까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완강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고 주력 과목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가족관계법은 시험 전날 '5번으로 찍자'고 정하고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도 10문제 중 5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2) 1차 시험을 마치며

1차 시험 직후에는 '역시 만만한 시험이 아니구나,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에 크게 낙심해 채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용기를 내어 채점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과락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 반드시 고득점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기에 자신 없는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주력 과목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준비 기간이 짧았기에 늘 불안과 막연함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퇴직 후 '1차는 바로 붙을 수 있다'고 자신하던 저는 점점 작아졌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때 '올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쌓아두자, 끝까지 완주만 하자'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 1주일만 매일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지만, 끝까지 한 글자라도 더 머릿속에 담으려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다짐이 1차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성취감이 2차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2차 시험

시험명	제31회 법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명	마
주민등록번호	_*****
응시번호	700098

과목명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서류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
점수	45	19	32.5	39.5	12	33	26.75

평균	51.9375
합격선	50
합격여부	합격

1) 2차 준비과정

1차 채점 후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 바로 동차 준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2차 기득권 시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차 직후부터 같은 해 2차 시험일까지 책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흘러보낸 그 시간을 이후 2차를 준비하는 내내 많이 후회했습니다.

동차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다음 해 기득권 시험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활용해 기초를 다지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기득권 준비는 동차 시험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2025년 2순환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년도 강의를 예비순환부터 1·2순환까지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이후 학원 일정에 맞춰 2·3순환 강의를 다시 수강하며 온라인 첨삭 모의고사도 빠짐없이 응시했습니다.

답안 작성이 막막했던 저는 모의고사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모범답안을 암기한 뒤, 시간을 재어 써보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한 줄이라도 더 시험장에서 써내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공부 방법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밀어붙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과목별 공부방법

- 민법(이혁준 교수님)

민법은 1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자신이 있었지만, 2차 민법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실관계 파악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매일 1시간 이상 꾸준히 보라고

하셨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고, 미루다 보니 시험 직전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꼭 하루 시간을 정해 습관처럼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올해 민법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출제되어 1교시를 마치고 많이 울었습니다. 첫날부터 과락을 예상하니 1년의 노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를 통해 반복 학습한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고 최대한 작성한 덕분에 과락을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형법(이재영 교수님)

형법은 순환마다 올려주신 프린트 자료와 5행정리 암기장을 반복 회독하며 개념과 판례를 암기했습니다. 실체법의 특성상 범위를 넓히기보다, 최소한의 내용을 확실히 암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 형사소송법(김영환 교수님)

예비순환부터 매일 복습했고, 교수님의 쪽지시험 자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3순환에서 강조하신 예상 문제가 실제 시험에 많이 반영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김기찬 교수님)

부동산등기법은 2차에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벽을 느낀 이후에는 최소 점수 확보를 목표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다만 모의고사와 예상 논점은 최대한 암기했습니다.

- 등기신청서류작성(김기찬 교수님), 민사사건서류작성(이천교 교수님)

등기신청서류작성과 민사사건서류작성은 매일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어 번갈아 연습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는 모범답안과 거의 동일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했고, 등기신청서류작성의 경우 모의고사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민사소송법(이혁준 교수님)

민사소송법 2·3순환 모의고사 자료를 중심으로 반복 학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차근 차근 쌓아가면 충분히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2차 시험이 끝난 직후, 저는 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법 과락을 예상했고, 그저 '혹시라도 과락만 면한다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험을 복기하며 상처받고 싶지 않아 답안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개월간 휴식을 취한 뒤, 2월부터는 불합격을 대비해 다시 1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고, 발표일까지 힘든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기다림이 덜 힘들었을 것 같다는 후회도 했습니다.

결과는 발표가 나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처럼 결과를 미리 단정하며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반드시 합격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수험 기간 동안 묵묵히 힘이 되어준 가족과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준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